

# 申圭植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외교활동

김 희 곤\*

- 
- I. 머리말
  - II. 이승만과의 만남
  - III. 광동 호법정부에 대한 외교 준비
  - IV. 광동행과 손문과의 협상
  - V. 워싱턴회의에 대한 협력 논의
  - VI. 열강의 외면과 그의 좌절
  - VII. 맺음말
- 

## I. 머리말

上海에 한국독립운동의 터전을 마련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晚觀 申圭植(1880~1922)이다. 그 가운데서도 1919년 4월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될 수 있던 터전을 만들어낸 공은 거의 신규식의 몫이었다. 1911년 상해로 망명하여, 이듬해 同濟社를 결성한 것이 그 첫 걸음이다. 이어서 新亞同濟社(1915)와 新韓革命黨을 만들어 중국 혁명인사들과 힘을 합치고, 제1차 세계대전의 추세를 지켜보면서 독립의 기회를 찾았다. 이러한 신규식의 작업 모두가 중국지역에 한국독립운동의 교두보를 확보하고 이를 다지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었다. 더구나 1917년 발표한 「大同團結宣言」은 근대국가를 건설한다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나라를 잃을 때는 비록 황제가 주인인 대한제국이었지만, 독립운동가들이 되살려 세울 국가와 정부는 민주공화정체를 갖춘 국가요 정부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다.

상해에서 1910년대에 벌인 신규식의 활동에는 외교활동도 돋보인다. 이미 신아동제사를 통해 중국 혁명 인사들과 어울려 움직이고, 또 1917년 스톡홀름에서 제2인터내셔널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에 조선사회당 명의로 참가희망 전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는 신규식이 한국의 독립문제가 국제사회의 여론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는 정확한 인식을 보여주는 대목이다.<sup>1)</sup> 제1차 세계대전을 지켜보면서, 이를 기회로 삼아 독립국가이자 근대국가를 세운다는 방향도 확립하였다. 그러한 과정에서 신규식의 역할은 결정적이었다. 마침 3·1운동이 일어나고, 선언된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

---

\* 안동대학교 사학과 교수 / 안동독립운동기념관장

1) 김희곤, 『中國關內 韓國獨立運動團體研究』, 지식산업사, 1995, 53쪽.

인의 자주민입'을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이를 운영할 조직으로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이 만들어졌다. 신규식의 공헌도를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기에 신규식이 펼친 활동으로 광동 호법정부에 대한 외교활동이 단연 눈에 띈다. 이에 주목한 연구도 나왔다. 아직은 혼돈스러운 점이 없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광동 호법정부에 대한 신규식의 외교활동은 점차 그 윤곽과 성격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못한 문제도 남아 있다. 심지어 호법정부에 대한 외교활동 자체를 불신하는 주장도 나온 형편이므로,<sup>2)</sup> 일단 그 행적을 차분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형편에 최근에 나온 세밀한 추적은 그러한 불신을 잠재우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sup>3)</sup>

이번 발표는 신규식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총리대리 겸 외교총장으로서 중국 호법정부에 펼친 외교활동을 정리하는 데 목표를 둔다. 이를 위해 먼저 그와 이승만의 만남과 그 의미를 추적하고, 이어서 광동 방문 일정에 대한 자료상의 혼선을 검토하여 정리한다. 그리고 손문 정부와의 교섭과 그 성과를 검토하는 데 발표의 초점을 둔다.

## II. 이승만과의 만남

신규식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관계는 건국 시기인 1919년 4월부터 그가 순국한 1922년 9월까지 3년 6개월에 걸쳐 지속되었다. 이를 간단히 네 개 시기로 정리할 수 있다. 첫 시기는 건국과 정부수립을 논의하고 실제로 현실화하던 단계이다. 그 직전까지 상해지역에서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신규식이다. 하지만 정작 첫 회의나 초기 각료 명단에는 그의 이름이 빠졌다. 둘째 시기는 1919년 4월 30일부터 1920년 3월까지이다. 이 시기에 신규식은 의정원 의원, 부의장, 법무총장 등을 역임하였다. 그러나 그의 첫 등장은 건강이 좋지 않아 짧게 끝났다. 7월 14일에 열린 제5회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그는 부의장직과 의원직을 모두 사퇴한 것이다. 9월 법무총장이 되고, 10월부터 정부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셋째 시기는 1920년 10월부터 1921년 5월까지이다. 반년의 공백을 거치고, 1920년 12월 임시대통령 이승만이 상해에 도착하자, 그의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승만이 상해에 체류하던 기간에 신규식은 내각의 가장 중요한 인물로 떠올랐다. 이승만이 공격을 받아 위태로워질 때 그를 지지하고 나섰고, 1921년 5월 이승만이 상해를 떠나 하와이로 향할 때, 그는 국무총리대리로 임명되었다. 넷째 시기는 이승만이 상해를 떠난 뒤 신규식이 국무총리대리 겸 외무총장으로서 정국을 정리하고 광동으로 남행하여 호법정부와 외교활동

2) 狹間直樹, 「孫文と韓國獨立運動」, 『季刊靑丘』 4, 1990.5, 17~19쪽.

森悅子, 「中國護法政府の大韓民國臨時政府承認問題について」, 『史林』 76~4, 1993, 69~86쪽.

3) 배경한, 「쑨원과 한국임시정부」, 『쑨원과 한국』, 한울아카데미, 2007, 68~103쪽.

을 떠던 1921년 5월부터 그해 연말, 그리고 모든 직임을 사직하던 1922년 3월까지이다.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시기가 이 때였다.

중국에 대한 신규식의 외교활동은 네 번째 단계에 집중되었다. 그가 이처럼 나설 수 있게 된 배경에는 안팎의 요인이 함께 작용했다. 맨 먼저 이야기해야 할 부분은 그가 중국에 대한 외교활동의 경력과 능력을 가진 사실이다. 하지만 이 부분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정리되었으니, 굳이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한어학교를 다녀 중국어에 능통했던 신규식이 나라를 잃자마자 중국으로 망명하고, 신해혁명에 발을 디딘 다음 손문을 비롯한 중국 혁명지사와 교류를 통해 넓은 인맥을 쌓았으며, 또 그의 존재와 활약이 상해에 한국 독립운동의 교두보가 만들어지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사실 등이다.

신규식이 건국과 정부 수립 직후부터 임시정부의 선두를 치고나간 것은 아니다. 건국과 정부 수립에 기초를 놓았던 그였지만, 막상 수립 단계나 초기에는 한 발 비켜나 있었다. 건강문제가 주된 이유였다. 그러다가 그가 적극적으로 임무를 맡고 나서거나, 특히 외교의 맨 앞으로 나서게 된 때는 1921년에 들어서였다. 그 계기가 이승만의 상해 체류와 관련을 가진다.

초대 임시대통령 이승만이 상해에 머문 시기는 1920년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꼭 반년이였다. 미국에서 원격제어로 정부를 지휘하던 이승만이 상해로 오게 된 이유는 임시대통령과 정부 사이에 처음부터 나타난 갈등 관계, 특히 1920년에 들어 나타난 갈등관계를 정리하여 원만한 정국 운영을 도모한다는 데 있었다. 임시정부는 상해에 있었지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탓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특히 1920년에 접어들면서 이에 따른 문제들이 더욱 심각해지면서, 상해에서는 임시대통령인 이승만에게 상해로 와 줄 것을 거듭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승만은 상해로 갈 것인지 확신하지 못하였다. 그는 평소에 상해에 있던 자신의 통신원을 통해 임시정부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시정부를 ‘원격조정’하고 있었다.<sup>4)</sup> 그런데 임시의정원에서 이승만의 상해 부임을 독촉하던 가운데, 1920년 5월에 金立을 비롯한 차장들이 이승만에 대한 불신입안을 임시의정원에 제출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통신원들은 이승만에게 이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 상해로 갈 것을 건의하였다.<sup>5)</sup> 이에 이승만은 워싱턴을 출발하여 하와이를 거쳐 1920년 12월 5일에 상해에 도착하게 되었다.<sup>6)</sup>

하지만 이승만이 상해에 도착하던 1920년 12월, 그것은 오히려 갈등이 폭발적으로 터져 나온

4) 한시준, 「이승만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유영익 엮음, 『이승만 연구: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건국』, 연세대출판부, 2000, 176~179쪽.

5) 한시준, 「이승만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유영익 엮음, 『이승만 연구: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건국』, 연세대출판부, 2000, 185~186쪽.

6) 유영익, 『이승만의 삶과 꿈』, 중앙일보사, 1996, 154. 『獨立新聞』은 1921년 1월 1일자로 「대통령 來東」이란 기사를 통해 이승만이 12월 8일에 상해에 도착한 것으로 보도하였지만, 이 날짜는 이승만이 임시정부에 자신의 도착을 통보한 시기로 보인다.

시점이기도 했다. 또한 이것은 신규식의 활약이 두드러지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했다. 당시 법무총장이던 신규식은 임시대통령을 맞이하여 그가 정부를 안정시키고 독립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했다. 그러나 이승만에 대한 기대와 비난은 심하게 엇갈리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민단을 비롯한 정부 주변의 단체와 인물들이 이승만을 환영하는 모임을 여러 차례 열었고, 다른 쪽에서는 이승만 반대세력이 북경에 모여 군사통일촉성회(1920.9)와 군사통일주비회(1921.4)를 열어 이승만을 비난하고 나섰다.<sup>7)</sup> 게다가 이승만이 임시정부의 산적한 문제들을 풀어 나가지 못하자 비판세력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져갔고, 1920년부터 논의되던 국민대표회 소집 요구가 갈수록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었다.<sup>8)</sup> 이런 상황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심각한 부담을 주었고, 그러한 부담은 내각을 구성하고 있던 신규식에게도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박은식을 비롯한 원로들과 의정원 의원들, 그리고 정부 외곽에서 활동하던 인물들이 1921년 2월 초에 발표한 「我同胞에게 告함」이란 선언은 이승만과 내각에게 충격을 주기에 충분하였다.<sup>9)</sup>

주변의 반대여론이 들끓자, 임시대통령 이승만을 지탱하던 내각은 대응세력 결집에 나섰다. 당시 내각을 구성하던 인물들이 임시정부의 존재가치를 내세우면서 이를 중심으로 대동단결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는데, 이 과정에서 조직된 단체가 협성회였다. 임시정부를 비판하는 선언들이 쏟아져 나온 직후인 3월 5일에는 趙璇九·尹琦燮 등 이승만 지지자 45명이 ‘임시정부 절대 유지’를 주장하면서, 이승만 임시대통령을 비롯한 임시정부에 절대적인 지지를 부탁하는 선언서를 발표하였다.<sup>10)</sup> 여기에 법무총장과 국무총리대리를 각각 맡고 있던 신규식과 이동녕이 적극 나선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 결과 3월 중순, 협성회가 조직되고 정부를 절대적으로 지지와 유지를 천명하고 나섰다.<sup>11)</sup>

5월이 되면서 신규식은 거의 혼자서 임시정부를 책임지는 상황을 맞았다. 이승만이 상해를 떠나 하와이로 떠나기에 앞서, 5월 16일 신규식을 국무총리대리로 임명하였기 때문이다. 이승만은 17일자로 발표한 교서에서 상해를 떠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지난 12월에 간신히 상해 도착, 국무원의 내부 결속 기도, 의외로 각원의 사퇴문제로 시일을 多費한지라, 지금에 다행히 각원 제공의 질서가 정돈되었으매 적체된 서무를 점차 집행되기를 바라는 바 본 대통령은 외교상 긴급(밀줄 필자)과 재정상 절박으로 인하여 다시 OO(渡美일 듯—필자)하기를 각원 제공과 협의 내정한지라... (후략)<sup>12)</sup>

7) 김희근, 『中國關內 韓國獨立運動團體研究』, 지식산업사, 1995, 145쪽.

8) 이 시기에는 ‘국민대표회’라는 이름이 사용되었지만, 1923년 1월 개최 이후에는 ‘국민대표회의’라는 명칭이 주로 사용되었다.

9) 국회도서관, 『韓國民族運動史料』(中國篇), 1976, 276~278쪽.

10) 국사편찬위원회, 『韓國獨立運動史』 3, 1967, 67~70쪽 참조.

11) 金正明, 『朝鮮獨立運動』 2 (東京: 原書房, 1967), 463~464쪽.

이승만이 상해를 훌쩍 떠난 뒤, 임시정부는 신규식이 혼자서 메고 가는 형국이었다. ‘각원의 사퇴문제로 시일을 多費’했다는 말은 정부의 심각한 혼돈현상을 말해준다. 국무총리 이동휘가 등 돌려 떠났고, 그를 지지하고 나섰던 안창호마저 끝내 물러선 형편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각원 제공의 질서가 정돈’되었다는 말로 상해를 떠난다고 밝혔다. ‘질서’라는 것이 다름 아니라, 신규식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떠난다는 뜻이었다.

그렇다면 왜 신규식은 이승만이 떠난 뒤, 혼돈 정국을 떠맡고 나섰을까. 이승만이 신규식을 2인자로 임명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뚜렷한 자료는 보이지 않지만, 상황만으로 본다면, 이승만에게는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 같다. 그가 상해에 도착한 뒤 가장 먼저 국무총리 이동휘가 의견과 노선대립으로 말미암아 임시정부와 결별하였고, 뒤를 이어 안창호가 임시정부에서 이탈하여 국민대표회 소집운동을 밀고 나갔다. 즉, 연해주와 미주지역을 각각 배경으로 삼았던 대표적 인물 두 사람이 이승만에게서 등을 돌린 것이다. 여기에서 이동휘의 후임으로 국무총리를 맡은 이동녕마저 체제 개혁을 들고 나와 이승만과 부딪치다가 퇴진하고 말았다. 이승만으로서는 이제 내각구성마저 힘들게 되었다. 이승만은 상해 정국을 안정시킨 뒤 미국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한 채 돌아가야 했다. 가시적인 성과가 없더라도 정국만은 수습해야 했으나, 이승만은 이마저도 실패했던 것이다.

이승만에게는 연해주나 미주가 아닌 중국 현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인물이 필요했을 것이다. 특히 상해의 정서에 맞는 인물이 바람직했는데, 이에 적합한 인물이 바로 신규식이었다. 그는 이미 1910년대의 활동을 통해 중국혁명인사들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고, 곳곳의 학교에 청년들을 파견하여 인재로 양성하고 있었으며, 더구나 이승만이 상해에 머무는 동안 줄곧 정부 옹호와 유지라는 태도를 고수해왔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승만 자신이 태평양회의에 참가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만큼, 태평양회의를 통해 중국과 공동전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단연 신규식이 가장 활용할 만한 인재였다.

한편 신규식도 이승만의 임명을 받아들일 만한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뒤를 받쳐줄 중국 인사들과 同濟社를 통해 길러낸 청년들의 지원, 1921년 4월에 광둥에서 호법정부가 수립되고 손문이 5월에 비상총통에 취임한 중국의 상황을 외교적 배경으로 삼을 수 있다는 자신감, 여기에 이승만이 기대하고 있는 태평양회의에 손문과 공동전선을 형성할 수 있으리라는 고려에 이르기까지, 신규식은 자신의 가능성들을 복합적으로 계산했을 것이다.

두 사람은 모두 태평양회의에 대해 정부의 외교 노력을 집중한다는 데 같은 인식을 가졌다. 신규식이 눈앞에 다가선 태평양회의를 큰 변수로 인식한 것만은 분명했다. 건국과 정부 수립 자체

---

12) 『獨立新聞』 1921년 5월 31일자.

가 제1차 세계대전을 마무리 짓는 파리강화회의와 얽혀 이루어졌고, 아직 외교로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의지도 강했다. 독립전쟁을 이끌어 갈만한 준비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거기에 기대는 것도 잘못은 아니었다. 이승만이 상해를 벗어날 명분으로 태평양회의 참석을 내건 일은 마땅했다. 이승만이 태평양회의에 참석하려고 시도하거나, 여기에 한국문제를 상정시키기 위해 노력을 펼치는 일은 무의미하지 않다고 판단할 만했다. 그렇다면 이승만이 신규식을 선택하고, 또 신규식이 이승만의 요청을 받아들일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나누어 맡을 역할이 논의되었을 것은 분명하다. 하나는 워싱턴에서 회의에 대표로 참석하여 한국문제를 상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역할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를 맡아 주변 국가와 교섭하여 한국문제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앞의 것은 당연히 이승만의 몫이다. 그렇다면 뒤의 것은 신규식의 몫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정부가 터를 잡고 활동근거지로 삼고 있던 중국에서, 그 협조를 끌어내는 일은 신규식이 가장 책임자였던 것이다.

두 사람의 선택, 태평양회의를 내다보며 손을 맞잡은 정황은 다음 두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中華南北政府에 위원을 派送하여 外交事宜를 管掌케하며 各省에도 系統的으로 聯絡交涉을 施할지며... (후략)<sup>13)</sup>

각하의 渡美하시기 前에 已爲 內命하신(밀줄 필자) 바에 의하여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本職을 廣東(中華民國)에 派遣하는 특사로 임명하기로 결정되야... (후략)<sup>14)</sup>

앞의 자료는 이승만이 상해를 떠나면서 발표한 「諭告」를 통하여 담아낸 여러 정책 가운데 한 부분이다. 여기에서 이승만은 광동·북경 정부와 외교관계를 펼쳐나가야 함을 밝혔다. 뒤 자료는 이승만이 미국으로 떠나기 앞서 두 사람 사이에 태평양회의를 대비한 논의가 있었음을 말해준다. 더구나 신규식 자신이 광동으로 간다는 결정은 이승만이 도미하기 이전에 ‘內命’한 데서 비롯된 것임을 말해주기도 한다. 두 사람의 ‘만남’은 국제회의를 앞두고 현실인식과 대응방식에 상호 협력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 Ⅲ. 광동 호법정부에 대한 외교 준비

그에게 주어진 임무는 정부 운영과 태평양회의 지원외교라는 두 가지가 골자였다. 국무총리대리

13) 「諭告」, 우남이승만문서편찬위원회, 『雲南李承晩文書』 東文篇 6, 중앙일보사연세대 현대한국학연구소, 1998, 65쪽.

14) 「국무총리대리법무총장 신규식이 임시대통령 이승만에게 보낸 보고」(國務院呈文28號, 대한민국 3년 9월 30일), 우남이승만문서편찬위원회, 『雲南李承晩文書』 東文篇 6, 중앙일보사연세대 현대한국학연구소, 1998, 409쪽.

겸 법무총장에다가, 이어서 외무총장까지 겸직하여 정부를 장악하면서, 미국에서 활약하는 임시대통령을 돕는 것이 그 하나였다. 다른 하나는 태평양회의에 참가하려고 시도하는 임시대통령을 도와 정부 차원에서 돕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직접 광동 호법정부의 지원을 교섭하고 이끌어내는 역할을 그가 맡는 것이었다.

신규식이 정부를 대표하는 모습은 5월 20일 열린 임시의정원 폐원식에서 드러났다. 이 날 그는 국무총리대리 겸 법무총장 자격으로 참석하여, 입법기관과 행정기관의 맥락이 잘 통하고 유지되는 것에 대해 치하하는 ‘告辭’를 발표하였다.<sup>15)</sup> 얼마 뒤인 5월 26일, 그는 외무총장까지도 함께 맡았다.<sup>16)</sup> 사실상 정부 운영을 한 손에 쥐게 된 것이요, 이승만이 그에게 전권을 위임한 셈이다.

이승만이 상해를 떠난 뒤, 신규식은 계속 이승만과 소식을 주고받으며 정국을 장악해 가는 한편, 외교활동을 준비해 나갔다. 마침 7월 10일 미국 Harding 대통령이 태평양회의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미 소문으로 떠돌고 있었지만, 참가일정과 참가국가에 대한 정확한 결정사항이 발표된 것은 7월이었던 것이다.<sup>17)</sup> 정부와 그 주변에서 활기가 일어났다. 정부는 정부대로 여기에 대처하는 움직임이 보였고, 정부 주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우선 태평양회의에 대한 정부 차원의 선전활동을 시작했다. 신규식은 이시영·이동녕 등과 더불어 대책을 협의하는 한편, 중국과 일본의 각계 인사들에 대한 선전활동을 펴기 시작했다. 그러자 신규식이 이끄는 내각을 지원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이승만이 상해를 떠난 사실에 대해 비난이 집중되었지만, 태평양회의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자 임시정부를 둘러싼 불협화음은 일단 잦아들어 갔다. 정부뿐만 아니라 정부에 거리를 두던 인물조차 ‘태평양회의외교후원회’(이하 후원회로 줄임) 결성에 참여하였다.

이 후원회는 8월 13일 상해 프랑스조계 白爾路 439호에 있던 교민단 회관에서 100명 넘는 한인이 참석한 가운데 발의되고 결성되었다. 26일 열린 3회 총회는 임시의정원 의장이던 洪鑣을 간사장으로 뽑고, 그 아래 서무와 재무를 맡을 전임 간사와 일반 간사를 뽑아 조직을 갖추었다.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특별연설회를 열기도 했다. 9월 초, 임시의정원 의장이자 후원회 간사장을 맡은 洪鑣이 주최하고 안창호가 강연을 맡은 연설회가 교민단 회관에서 열린 것이다.<sup>18)</sup> 그 자리에서 「선언서」가 채택되었다. 태평양회의에 참가한 열국이 동양평화의 근본문제인 대한의 독립을 완전히 승인할 것을 요구하고, 각지의 동포와 단체가 연결하여 일치단결 선전활동에 나서며,

15) 『獨立新聞』 1921년 5월 25일자.

16) 「대한민국임시정부공보」 호외 및 25호, 『雲南李承晩文書』 東文篇 7, 중앙일보사연세대 현대한국학연구소, 1998, 230~231쪽.

17) 참가국은 미국·영국·프랑스·이탈리아·일본·중국·벨기에·네덜란드·포르투갈 등 9개 국가이다.

18) 「연설회 개최 통지문」·「태평양회의에 외교후원회 간사회 조직」·「태평양회의에 대한 외교후원회 규칙」·「특별 대연설회 개최 통지문」, 우남이승만문서편찬위원회, 『雲南李承晩文書』 東文篇 8, 중앙일보사연세대 현대한국학연구소, 1998, 373~377, 386쪽.

이를 재정적으로 후원한다는 내용이 핵심이었다.<sup>19)</sup> 만약 이것이 이승만과 신규식의 계산된 의도였다면, 일단 정국안정이라는 면에서는 성공적인 것이었다고 평가할 만하다.

이처럼 후원회가 정부를 돕고 나서자, 임시정부는 후원회와 외교활동을 나누어 맡는 방안을 찾았다. 그 결과 신규식은 신익희와 함께 중국 남방, 곧 광둥정부를 담당하는 책임자가 되었다.<sup>20)</sup> 신규식은 이승만을 태평양회의에 참가할 대표장으로, 서재필을 출석대표로 각각 결정했다는 공문을 내고, 이 회의에 제출할 「요구서」를 요령·서언·조건·이유·결론 등으로 작성하였으니 이를 영문으로 번역하여 제출해달라고 이승만에게 주문하였다.<sup>21)</sup> 이승만도 미국에서 9월 9일자로 국무원과 신규식에게 보낸 공함에서 “태평양대회는 吾族의 莫大한 기회라. 마땅히 극력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워싱턴대회에 참가권을 요구할 것이며 조선이 독립국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겠다는 굳은 의지를 나타냈다.<sup>22)</sup>

이제 나설 길은 본격적인 외교 무대였다. 광둥에서 성립한 호법정부가 그 대상이었다. 손문 총통에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승인과 지원을 요청하고, 태평양회의에 공동보조를 취하자고 요구하러 나선 길이었다. 신규식은 광둥행에 나서기에 앞서 이승만에게 보낸 글에서, 이승만의 도미 이전에 논의한 것처럼 태평양회의에 광둥정부 대표가 파견될 경우 그 대표와의 협조를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을 밝혔다.

廣東政府를 內容으로 承認하여 我國政府와 因緣을 結하며 各界要人으로 接洽聯絡하고 今番 太平洋會議에 廣東政府의 代表派遣이 尙今未定이오나 萬一 派遣게 되면 그 代表에게 豫先 約束하여 我國問題를 회의에 제출케 하고 盡力幫助케 하도록 하기 爲함.<sup>23)</sup>

신규식은 본격적인 외교활동을 위해 광둥으로 떠나기 전, 중국과 일본의 각계 인사들에게 보내는 글을 발표하여 선전 작업에 들어갔다. 우선 태평양회의에 즈음하여 중국과 일본이 한국 독립 문제를 제기하고 지원해야 하는 이유를 내건 선언서를 발표하고 발송했다. 중국 인사들에게는 한

19) 「宣言書」, 우남이승만문서편찬위원회, 『雲南李承晩文書』 東文篇 8, 중앙일보사연세대 현대한국학연구소, 1998, 387~389쪽.

20) 「朝鮮治安狀況」,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獨立運動史資料集』 7, 1973, 486~487쪽.

21) 「국무총리대리법무총장 신규식이 임시대통령 이승만에게 보내는 보고」(國務院呈文27號, 1921.9.8), 우남이승만문서편찬위원회, 『雲南李承晩文書』 東文篇6, 중앙일보사연세대 현대한국학연구소, 1998, 362~364쪽; 대한민국국무총리대리법무총장 신규식 명의, 「此書類를 接覽하는 衆位에게 宣함」(대한민국 3년 9월 29일), 같은 책, 431~432쪽.

22) 「國務院僉位鈞照, 腕觀仁兄鈞鑑, 尊函第一號를 接하야」, 우남이승만문서편찬위원회, 『雲南李承晩文書』 東文篇 6, 중앙일보사연세대 현대한국학연구소, 1998, 86~88쪽.

23) 「국무총리대리법무총장 신규식이 임시대통령 이승만에게 보낸 보고」(國務院呈文28號, 대한민국 3년 9월 30일), 우남이승만문서편찬위원회, 『雲南李承晩文書』 東文篇 6, 중앙일보사연세대 현대한국학연구소, 1998, 410쪽.

국의 독립을 지원해야 하는 역사적인 이유를 설명하고,<sup>24)</sup> 일본의 법률단체 인사들에게는 한국문제가 유럽의 발칸 사정과 마찬가지로이므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東亞戰爭 발발이 필연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일본정부에 해결을 재촉하라고 요구하였다.<sup>25)</sup> 이러한 활동은 사전 정치작업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중국 인사들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총리대리외무총장 신규식’의 이름으로 「大韓民國臨時政府敬告中華民國各界諸君子書」를 발표하고 발송하였다. 그는 이 글에서 중국의 여러 인사들이 한국의 독립을 적극 도와야하는 네 가지 근거를 제시하였다. 즉, 중국의 역사적 인도주의, 세계대전의 재발을 막아낼 세계평화, 청일전쟁 이래 약속된 국제신의, 脣齒關係를 가진 양국의 정세 등이 그것인데, 결론적으로 태평양회의에 중국대표를 파견하고 한국의 독립 문제를 제기하여 세계의 公判을 이끌어 내줄 것을 당부하였다.<sup>26)</sup>

이어서 신규식은 일본의 각 법률단체에 다음과 같은 요지의 통고서를 보냈다.

우리나라를 욕심낸 나라는 귀국이다. 지금 태평양회의를 앞두고 본국에서는 대회에 대표를 파견하려 한다. 귀국은 국제조약에 따라 대회에서 한국의 독립 문제를 제출하여 주기를 바란다. 이 문제는 귀국의 자구책 가운데 상책이다. 발칸문제 때문에 유럽전쟁이 일어났듯이 지금 귀국의 지위가 바로 서방의 발칸사정과 똑같다. 때문에 동아전쟁이 일단 발동되면 귀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 먼저 참여할 것이 조금도 의심되지 않는다. 본국 문제가 토의될 것을 희망하며 귀 정부를 재촉하기를 바란다. 이것은 귀국을 위한 자구책이며 양국을 위한 일이다.<sup>27)</sup>

주장의 요지는 한국의 독립 없이 동아시아의 평화를 일구어낼 수 없으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법률단체가 나서서 일본정부로 하여금 이 문제를 태평양회의에 제출하고 해결하도록 압력을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실이 보도된 시기가 1921년 10월 5일이므로, 통고서는 대개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일본으로 발송되었을 것이라 짐작된다. 그리고 바로 이 무렵, 신규식은 광동으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 IV. 광동행과 손문과의 협상

24) 「大韓民國臨時政府敬告中華民國各界諸君子書」, 우남이승만문서편찬위원회, 『雲南李承晩文書』 東文篇 6, 중앙일보사연세대 현대한국학연구소, 1998, 420~424쪽.

25) 『申報』 1921년 10월 5일자.

26) 「大韓民國臨時政府敬告中華民國各界諸君子書」, 우남이승만문서편찬위원회, 『雲南李承晩文書』 東文篇 6, 중앙일보사연세대 현대한국학연구소, 1998, 420~424쪽.

27) 『申報』 1921년 10월 5일자.

임시정부의 국무총리대리 겸 외무총장으로서, 또 특사로서 신규식은 광동행에 올랐다. 그 일정과 행적에 대한 자료는 신규식을 수행하였던 閔弼鎬가 뒷날 중경에서 기록한 『韓中外交史話』가 거의 유일한 편이다. 이 글은 신규식의 광동외교를 가장 정밀하게 알려주는 자료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광동에서 발간된 신문 자료를 비롯한 몇 가지 기록과 일정이 맞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일정만이 아니라 사실 자체에 대한 의심을 가지는 경우까지 나타났다.<sup>28)</sup> 그렇다면 우선 광동행의 전반적인 일정부터 검토한 뒤에 활동 내용을 보는 것이 순서일 것 같다.

표를 보면 『한중외교사화』 기록이 다른 자료들과 비교할 때 차이가 있다. 면밀하게 검토한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sup>29)</sup> 대개 민필호의 회고는 실제 있었던 일과 대개 한 달 정도의 시차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민필호가 20년이나 지난 뒤 중경에서 회고록을 작성할 때, 일정에 대해 약간 착각한 때문일 것이다.

민필호의 기억은 다른 부분에서도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대표적인 예가 신규식이 손문을 만난 날짜와 국서를 봉정한 장소이다. 민필호는 신규식이 손문을 만난 날짜를 11월 3일로 기록했지만, 손문은 그 당시 광주에 없었다. 실제 중국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신규식·손문의 면담은 10월 초에 이루어졌다. 또 국서를 봉정한 장소와 계기에 대해, 민필호는 11월 18일 신규식이 東較場에서 열린 北伐誓詞式에 참석하여 국민의 예우를 받았고, 거기에서 국서를 봉정했다고 적었다. 하지만 중국 기록에는 그 어디에도 북벌서사전례가 나타나지 않고, 다만 10월 10일 신해혁명 10주년 기념식과 열병식이 동교장이 아닌 북교장에서 열렸다고 기록되어 있다.<sup>30)</sup>

전반적으로 보아, 신규식이 광주로 가서 활동한 내용은 인정할 만하다. 도착하자마자 호법정부의 주요 인사들을 두루 만나고, 이어서 손문을 면담하여 한국문제를 논의한 것은 분명하다. 일본 총영사관 보고서도 최소한 신규식의 광동 도착과 요인 면담 내용 정도는 담고 있다. 신규식이 국서를 봉정하고, 광주에 있던 열강들의 외교관을 초대하여 한국문제를 환기시킨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신규식의 광동 방문에 대한 일정 검토>

	『한중외교사화』 기록	신문보도·일제정보보고	배경한의 견해
광 동	1921년	9월 27일 중한호조사 성립대회	9월 말 광주 도착

28) 狹間直樹, 「孫文と韓國獨立運動」, 『季刊靑丘』4(1990.5), 17~19쪽; 森悅子, 「中國護法政府の大韓民國臨時政府正式承認問題について」, 『史林』76~4(1993), 69~86쪽.

29) 배경한, 『쑨원과 한국』, 한울아카데미, 2007, 84~87쪽.

30) 「雙十節之廣東」, 『四民報』 1921년 10월 15일자 1~4면(배경한, 『쑨원과 한국』, 한울아카데미, 2007, 87쪽에서 재인용)

방 문 일 정	10월 26일 상해 출발 28일 홍콩 도착 29일 唐繼堯 만남 30일 광주 도착 31일 胡漢民·徐謙 요인 방문	10월 초 손총통 면담 보도 (상해민국일보 10.4) 10월 상순 광주도착보도(독 립신문 11.11) 신규식·손문 영접보도(四 民報 10.16) 신규식 광동정부 방문(廣東 群報 10.18) 10월 10일 광동정부 신해혁 명기념식(北較場) 10월 11일 신규식 광동도착 (일본총영사관보고서) 10월 15일 북벌독려 위해 광 서 지방 출장(손문 광주 부계)	10월 초 손문 면담 10월 10일 국서 봉 정(신해혁명십주년 기념식)
	11월 3일 손문 방문 회담 11월 5일 韜美醫院 입원 11월 10일 광주 중한호조사 성립대회 참석 11월 18일 東較場 북벌서사 식 참석, 손문에게 國書 봉 정 의식 11월 31일 唐家灣 唐繼堯 방문	12월 14일 신규식 상해에서 확인됨(大東旅社에서 중국 인사초청 연회 주최)	11월 말 광주 출발 상해행
	12월 22일 新新餐廳 연회 12월 25일 광주 출발, 상해행		

일단 일정 차이를 감안하면서 신규식의 행보와 활동 내용을 본다. 신규식은 9월말 閔弼鎬를 데리고 상해 滙山埠頭에서 1만 톤급의 프랑스 우편선 S. Sniel을 타고 출발하고, 이틀 뒤 홍콩에 도착하였다. 그는 다음 날 雲南의 주요인물인 唐繼堯를 만나, 그가 운남에 돌아가면 한국을 위해 최소한 2개 사단의 군관인재들을 양성하여 한국의 혁명을 원조하고 또 中佛銀行의 예금문제가 해결될 경우 10만 원을 찬조한다는 약속을 받아냈다.<sup>31)</sup> 그날 오후에 광동에 도착한 신규식은 다음 날 호법정부 청사와 각 부회 및 친지를 방문하고, 총통부 비서장 胡漢民, 대리원장 徐謙, 내무부장 呂志

31) 민필호, 『韓中外交史話』, 김준엽 엮음, 『石麟 閔弼鎬傳』, 나남출판, 1995, 224쪽. 당계요는 운남강무당(군관학교)에 한인학생 50여 명을 졸업시킴으로써 군관인재들을 양성하겠다는 약속을 지켰지만, 상해 중불은행이 파산함에 따라 예금을 찾지 못하면서 경제적으로 지원한다는 약속까지는 이행하지 못했다.

伊(天民) 등을 만나 광동에 온 목적을 밝혔다. 당시 광동의 각 신문은 “한국특사 신규식 씨가 來廣하여 우리 당국과의 협상이 매우 융화하였으며 全廣東은 기뻐 경축한다.”라고 보도하였다.<sup>32)</sup>

10월 초, 신규식은 孫文을 만났다. 이에 앞서 그는 觀音山 아래에 있던 비상총통부를 방문하여 호한민(대통령 비서장)을 만난 다음, 외교부에 들러 伍廷芳(호법정부 외교부장)을 만나 국제관계에 따라 대총통 접견 절차를 밟았다. 그런 뒤에 다시 관음산 중턱에 터를 잡은 대총통 관저를 방문하여 손문을 만난 것이다.<sup>33)</sup> 그 자리에서 신규식은 다음과 같은 「互惠條約 五款」을 제시하고 설명하였다.

- 1)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護法政府를 중국 정통의 정부로 승인함. 아울러 그 元首와 국권을 존중함.
- 2) 大中華民國 호법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할 것을 요청함.
- 3) 한국 학생의 中華民國 軍官學校 수용을 허가하기를 요청함.
- 4) 차관 5백만 원을 요청함.
- 5) 租借地帶를 허락하여 한국독립군 양성에 도움이 되게 하기를 요청함.<sup>34)</sup>

제1·2항은 상호 승인을 요구한 것이고, 제3항은 한국학생의 군사간부 육성을 도와달라는 것이며, 제4·5항은 경제적 지원과 근거지 제공을 부탁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손문은 신규식의 요구가 당연한 일이지만 이를 실현하기에는 시일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왜냐하면 손문이 이끄는 호법정부 자체가 아직 광동성이라는 하나의 省만 장악하고 있어 자신들도 다른 나라의 승인을 얻지 못하는 형편이었고, 그만큼 활동영역이나 재정 면에서 전혀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손문은 이와 같은 사정을 하나씩 설명한 뒤, 대신 한인청년에 대한 군사교육에 관해서는 “군관학교에 귀국 자제를 전부 수용하여야 한다고 명령을 전달하겠다. 租借地를 가지고 군사를 훈련시켜 혁명의 근거지로 삼는다는 데 대하여 나는 북방이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하지만, 호법정부의 역량으로는 아직 도달치 못하고 있으니 (중략) 일제의 실력 원조는 북벌계획이 완성됨을 기다린 후 시기가 오면 全力으로 한국 광복운동을 원조하겠다.”라고 답함으로써, 가능한 부분부터 실천에 옮긴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sup>35)</sup>

신규식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상호승인 문제는 형식과 실제라는 측면에서 약간의 문제를 드러냈다. 형식적으로 완전히 상호승인이 이루어지려면 양 국가의 의회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32) 민필호, 『韓中外交史話』, 김준엽 엮음, 『石麟 閔弼鎬傳』, 나남출판, 1995, 230쪽.

33) 관음산은 현재 粵秀公園으로 가꾸어져 있고, 중턱에 있던 손문의 관저 자리에 ‘孫先生讀書治事處’라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34) 민필호, 『韓中外交史話』, 김준엽 엮음, 『石麟 閔弼鎬傳』, 나남출판, 1995, 232쪽.

35) 민필호, 『韓中外交史話』, 김준엽 엮음, 『石麟 閔弼鎬傳』, 나남출판, 1995, 238쪽.

쌍방이 이를 마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상호승인을 달성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그 첫째 이유는 비록 ‘정부승인’은 아닐지라도 이를 찬성하는 손문의 의지가 광동국회에서 ‘한국독립승인안’을 상정하고 통과시켰다는 점이다.<sup>36)</sup> 둘째 이유는 신규식이 손문에게서 공식적인 외교관계 성립을 상징하는 공식접견의 기회를 받아냈다는 점이다. 마침 10월 10일 廣州北較場에서 열린 신해혁명 10주년기념식에서 신규식이 임시정부의 대표자격으로 참석하여 정식 외교절차에 따라 대총통을 접견하는 의식을 가졌던 것이다. 그리고 셋째 이유는 임시정부가 1922년 2월에 외무부 외사국장 朴贊翊을 광동주재 임시정부 대표로 파견하여 외교업무를 관장하게 하였는데,<sup>37)</sup> 호법정부에 駐節하는 동안 호법정부로부터 매월 광동화폐인 毫洋 5백 元씩, 6개월에 걸쳐 원조를 받았다는 점이다.<sup>38)</sup>

이처럼 광동 호법정부에서 임시정부에 대한 승인문제 처리는 손문의 개인적인 견해 표명이나 호법정부의 비공식적인 승인이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임시정부의 외교관을 광동에 머물도록 허용하고, 이에 대해 재정을 지원한 조치는 사실상 외교관계를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이 합의에 따라 임시정부가 파견한 대표가 광주에 머물면서 활동했다는 사실도 호법정부가 임시정부를 사실상 승인했음을 말해준다.<sup>39)</sup>

이와 같은 외교적 성과는 임시정부가 소련에 이어 두 번째로 성립시킨 공식적인 외교관계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배경은 신규식이 임시정부 수립 이전부터 손문을 비롯한 중국혁명지사들과 교류하며 협력관계를 마련해 놓은 데 있었다.<sup>40)</sup> 따라서 상호승인문제에 대해 양측은 정확한 의미에서 볼 때 모두 합법성을 결여하고 있지만, ‘사실상의 승인’을 일구어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sup>41)</sup>

## V. 워싱턴회의에 대한 협력 논의

신규식이 손문에게 요청한 것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해달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태평양회의에 공동 대처하자는 주문이었다. 먼저 신규식은 손문에게 태평양회의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하자고 제안하였다. 즉 이미 임시정부가 파리와 워싱턴에 歐美委員部를 만들고 범태평양회의에도 대표를 파견하여 선전에 노력하고 있으니, 호법정부도 그들의 대표에게

36) 『獨立新聞』 1921년 12월 6일자.

37) 강영심, 「申圭植의 생애와 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 247쪽.

38) 민필호, 「韓國獨立運動에 協助한 中國人士」, 김준엽 엮음, 『石麟 閔弼鎬傳』, 나남출판, 1995, 146쪽.

39) 배경한, 『쑨원과 한국』, 한울아카데미, 2007, 91~92쪽.

40) 강영심, 「申圭植의 생애와 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 247쪽.

41) 배경한, 「孫文과 上海韓國臨時政府-申圭植의 廣州訪問(1921년 9~10월)과 廣東護法政府의 韓國臨時政府 承認問題를 中心으로」, 『東洋史學研究』 56, 1996, 109쪽.

한국대표와 호응하도록 훈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손문은 태평양회의가 가지는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호법정부 대표에게 훈령을 내려 양국 대표의 협조를 이끌어내자는 데 신규식과 합의하였다.<sup>42)</sup>

태평양회의에 대한 양 정부 사이의 협조 약속은 당장 광둥지역에서 실천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광주의 中韓協會가 “華盛頓에서 열리는 태평양회의에 대하여 한중에 대한 요구조건을 전보로 제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sup>43)</sup> 이어서 이 협회는 한국과 중국에 대한 일체의 비밀조약과 강박조약, 예를 들면 한국에 대한 ‘을사조약’과 합병조약, 중국에 대한 21개조 산동문제 등이 무효임을 주장하고, 한국독립과 중국영토의 완전 담보를 약속한 馬關條約의 완전 이행을 촉구하는 선언을 발표하였다.<sup>44)</sup>

신규식이 호법정부를 방문하는 동안, 광동의 신문도 그에 대해 호감을 갖고 보도하였다. 대표적으로 『廣東群報』가 「政府對付韓使之態度」라는 제목 아래 신규식의 방문을 자세하게 보도한 것을 들 수 있다. 머리글만 보아도 호법정부 요인들이 신규식에 대해 극진하게 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신정부가 그를 접대하는 데 정부 각 요인이 비록 국제관례에 따라 아직 정식으로 접견할 수 없지만 申君이 다년간 함께 고생한 사람이라 만약 형세에 구애된다면 매우 편치 않을 것이라. 특별히 사사로이 정을 나누고 여러 차례 만나기를 청하니 大理院長 徐季龍 등의 요인들이 연일 老友로서의 정을 나누고 연회를 열어 환영하고 있다.<sup>45)</sup>

이 글은 신규식이 손문을 만나는 장면 또한 보도하면서, 특히 신규식의 발언을 다음과 같이 자세하게 표현하였다.

申君이 首座(손문—필자)를 알현하매 頌詞를 아뢰니 그 정의가 진지하다. 대개 그 내용은 “한국이 회복독립을 선포하고 공화정부를 改建하였으니 국체가 귀국과 같습니다. 이후 일체의 귀국이

42) 민필호, 『韓中外交史話』, 김준엽 역음, 『石麟 閔琦編傳』, 나남출판, 1995, 237, 239쪽.

호법정부는 당시 중국북방정부가 태평양회의에 대표를 파견하자 이를 부정하고 북방대표 승인을 중국의 내정간섭으로 규정하면서, 열강의 이권과 일본의 21개조에 대한 불인정을 선언하였다. (『獨立新聞』 1921년 12월 6일자)

43) 『獨立新聞』 1921년 11월 11일자. 1921년 9월 安徽省 의원인 丁象謙, 북경에서 남하한 국회의원 謝英伯·朱念祖·高振霄·張啓榮·葉夏聲, 호법정부 사법부장 서겸 등은 한인 金檀庭·金熙譚·朴化祐·孫士敏 등과 함께 광주에서 중한협회를 결성하였다.(국회도서관, 『韓國民族運動史料』三·一運動篇 其二, 1976, 634쪽) 9월 27일에 중한협회는 선언을 발표하고 중국과 한국의 제휴와 互助 등을 주장하였다. (『在上海共產黨首領呂運亨取調狀況に關する件』, 『日本外務省特殊調査文書』 26, 1989, 454쪽)

44) 『獨立新聞』 1921년 11월 19일자.

45) 『廣東群報』 1921년 10월 18일자. (재광둥일본총영사가 외무대신에게 보낸 보고에 스크랩된 기사)

찬조해 줄 것으로 믿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낙관합니다. 규식이 총통의 내리 사랑을 입은 지 10년에 각하께서 하늘을 슬퍼하고 국민을 애뜻하게 여기며 길이 大同에 있음을 깊이 알게 되었고, 이제 중화를 안정되게 지키며 大局을 주지하며 새로운 국면을 이끄시니 더 이상 기쁠 수가 없습니다. 삼가 각하께서 이웃이 스스로 구할 수 있도록 더욱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동아회평이 이에 영원히 보존되기를 실로 본국정부와 2천 만 인민이 기도하는 바입니다.”

호법정부의 극진한 대우는 신규식의 병환에 대한 태도에서도 드러났다. 신규식이 과로로 말미암아 불면증에 걸려 광주 韓美醫院에 입원하였을 때, 손문 총통은 호양 천 원을 치료비로 보내주었고, 또 호법정부 大理院 원장 서검과 총통부 비서장 호한민으로 하여금 문병하도록 하였다.<sup>46)</sup>

## VI. 좌절과 순국

신규식은 광동에 주재하고 있던 각국의 외교관들에게 한국문제를 알리는 데 힘을 쏟았다. 그는 의사인 李聖耀에게 프랑스어 통역을 맡기고 광동시내 沙面 지역에 주재하는 각국 영사관을 방문하여 한국의 독립 문제를 선전하였다. 또 1921년 12월 22일에는 新新호텔에 각국의 영사들을 초청하였는데, 이 자리에는 미국·프랑스 영사 및 총통부 내빈 등 6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때 신규식은 중국어로 연설하였으니, 3·1운동 경과와 각지 운동의 근황, 중국호법정부가 한국임시정부를 정식으로 승인한 경과를 설명한 다음, 이에 열국이 한국독립운동에 대해 한층 더 원조하고 지도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부탁하였다.<sup>47)</sup> 프랑스 영사와 미국 영사가 각각 축사를 하였다. 이 행사를 끝으로 신규식은 광동에서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1921년 12월 25일 아침에 광동을 출발하여 상해 직행 기선으로 돌아왔다.<sup>48)</sup>

신규식의 외교활동은 호법정부에게서 ‘사실상 승인’을 획득하였고, 호법정부가 北伐을 이루어 가는 과정에서 임시정부에 대한 지원을 늘려가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었다. 또 태평양회의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한다는 입장에도 호법정부와 합의하였다. 그러한 점에서 신규식의 광동행은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이라 평가할 만하다. 결국 이승만과 사전 조율을 거친 이러한 외교활동을 통해 태평양회의에 대한 임시정부의 외교활동에서 임시정부가 본부로서 기능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이승만 대통령을 회의장소로 전진 배치하고자 신규식이 호법정부와 공동전선을 형성하였던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신규식은 상해로 돌아오자마자 외교의 성과를 널리 알렸다. 우선 박찬익을 호법정부에 파견하

46) 민필호, 「韓國獨立運動에 協助한 中國人士」, 김준엽 엮음, 『石麟 閔弼鎬傳』, 나남출판, 1995, 146쪽.

47) 민필호, 「韓中外交史話」, 김준엽 엮음, 『石麟 閔弼鎬傳』, 나남출판, 1995, 255쪽.

48) 민필호, 「韓中外交史話」, 김준엽 엮음, 『石麟 閔弼鎬傳』, 나남출판, 1995, 256쪽.

였다. 이어서 12월 14일, 그는 상해 大東旅社에서 중국 인사들을 초청하여 연회를 베풀고, 광둥에서 거둔 성과를 설명했다. 승인문제를 알리는 것만이 아니라, 태평양회의에 대한 공동대응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워싱턴회의는 끝내 한국문제를 외면했다. 한국문제는커녕 대표 참석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더구나 광둥 호법정부마저도 태평양회의와 등을 돌렸다. 북경정부가 대표성을 인정받고, 여기에 호법정부 대표를 끼어 넣는 선에서 타협안을 끌어내려던 미국의 자세에 손문이 반발하면서, 대표 파견 자체를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므로 신규식의 광둥 방문과 활동이 목표로 삼은 두 가지 사안 가운데 태평양회의에 대한 공동대응은 사실상 물 건너가고 말았던 것이다.

기대가 큰 활동일수록 그 결과에 따른 영향 또한 클 수밖에 없다.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외교수단을 총동원하여 활동을 폈지만, 태평양회의가 기대한 것과 전혀 동떨어진 방향으로 끝나버리자, 임시정부는 다시 안팎으로 큰 시련에 부딪히게 되었다. 태평양회의 전후로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던 국민대표회 추진운동은 다시 불꽃을 튀기기 시작했다. 이를 견디다 못한 신규식 내각은 물러서기로 작정했다. 내무총장 이동녕이 1922년 2월 말에 사면서를 제출하자, 신규식은 마지막으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다가, 3월 20일 끝내 이시영과 함께 사직하고 말았다.<sup>49)</sup> 盧伯麟 군무총장을 제외한 국무원 전원이 총사퇴를 결의하고 만 셈이다.<sup>50)</sup> 이로써 임시정부는 사실상 무정부상태에 빠져들었다.

신규식이 겪어야 하는 고통은 너무나 큰 것이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던진 일생일대의 승부수가 무너지는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제10회 임시의정원회의에서 국민대표회의에 대한 인민청원안이 통과되고, 대통령 이승만에 대한 불신임 결의가 터져 나왔다. 신규식은 임시정부의 이러한 분열상태를 비판하여 5~6월경부터 심장병과 신경쇠약으로 병석에 누워야 했고, 오래 지나지 않아 중태에 빠졌다.<sup>51)</sup> 그러다가 9월 25일 밤 9시 반, 신규식은 상해 福照路 愛仁里 31호에서 순국하였다.<sup>52)</sup> 그는 이미 자신의 병을 되돌리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음식과 약을 끊었고, 임시정부의 처지를 비판하여 입을 닫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독립을 이루어야 한다는 부탁을

49) 『獨立新聞』 1922년 3월 31일자. 盧伯麟 군무총장을 제외한 국무원 전원이 사직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임시의정원은 4월 7일 임시대통령에게 책임을 물기로 결의하게 되었다. (『獨立新聞』 1922년 4월 15일자) 여기에다가 임시의정원은 당시 추진되고 있었던 국민대표회의 소집을 위한 인민청원안(千世憲 등 102인 청원)이 결국 14일에 통과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獨立新聞』 1922년 6월 24일자)

50) 국회도서관, 『大韓民國臨時議政院文書』, 1974, 137~138쪽; 강영심, 「申圭植의 생애와 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 247쪽.

51) 『獨立新聞』 1922년 7월 8일자.

52) 『獨立新聞』 1922년 9월 30일자.

남겼다.

“나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그럼 잘 있으시오! 친구분들 나는 가겠소 여러분들. 임시정부를 잘 간직하시고 삼천 만 동포를 위해 진력해 주시오 나는 가겠소 나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그 후부터 줄곧 절식하고 다시는 말을 하지 않았다.<sup>53)</sup>

『申報』는 신규식의 죽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신규식 총리가 지난 4월부터 몸이 불편하여 신경쇠약증에 걸렸는데도, 국사에 대해 너무 마음을 아파한 나머지 병세가 호전되지 않고 있었는데, 건강으로 인해 더 이상 나라를 위하여 일을 할 수 없음을 알게 되자 더 이상 살 의미가 없다면서 의사가 권하는 약도 쓰지 않았고, 이달 1일부터는 아예 모든 음식까지 전폐하였다. 그는 음식도 전폐하고 약도 전폐하며 말도 전폐하겠다고 선포하였다. 이렇게 20여 일을 지속하다가 어제 밤 9시에 거처하던 집에서 작고하였다.<sup>54)</sup>

이 기사는 신규식의 병환이 임시정부의 형세에 따라 더욱 깊어졌고 또 그것 때문에 생명을 유지해 나갈 의미를 상실했다는 점, 그리고 9월 1일부터 스스로 식음을 끊고 말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다. 이 기사는 신규식의 죽음이 표면적으로 病死이지만, 사실상 ‘自決殉國’이라고 평가한 것이다. 혼절한 상태에서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내뱉은 말이 “정부, 정부”였다고 전해지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 VII. 맺음말

신규식은 상해에 한국 독립운동의 교두보를 마련한 인물이다. 더구나 1910년대에 중국만이 아니라 세계정세를 지켜보면서 제2인터내셔널 회의에 조선사회당 이름으로 참가를 희망하는 전문을 보낸 인물이기도 하다. 그만큼 신규식은 외교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특히 그는 중국어에 능통하고, 신해혁명에 발을 디딘 뒤로 중국 혁명인사들과 교류하는 폭이 넓고 깊었다. 그의 이러한 능력과 활동 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해에 세워질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된 것이다.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임시정부가 수립된 뒤, 신병으로 한 발 물러나 있던 신규식이 다시 정부에 적극적으로 나선 계기는 임시대통령 이승만이 상해를 방문한 데서 찾을 수 있다. 마침 1921년 4월 광둥에서 호법정부가 세워지고, 5월에 이승만이 상해를 떠나면서 정국 운영권을 신규식 손에

53) 민필호, 「申圭植先生傳記」, 김준엽 역음, 『石麟 閔弼鎬傳』, 1995, 319쪽.

54) 『申報』 1922년 9월 27일자.

줘어 주었다. 여기에서 두 사람 사이에 협력관계가 성립되었다. 이승만이 상해의 혼란 정국을 수습하지 못한 채 떠나면서, 두 가지 업무를 수행해낼 인물이 필요했다. 정국 안정은 당연하고, 곧 발표된 태평양회의에 대한 안팎의 협조를 끌어낼 인물이 필요했던 것이다. 호법정부의 협조를 끌어낼 적격자로 신규식을 지목했다.

이와 반대로 외교에 깊은 관심을 가진 신규식 역시 태평양회의를 전망하면서 자신이 펼 외교활동을 기쁘게 보았다. 호법정부의 힘을 동원하여 태평양회의에 공동대응책을 만들어낸다면 이승만을 정점으로 삼은 외교활동에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신규식은 이러한 계산 위에 국무총리와 법무·외무총장을 겸직하면서, 호법정부에 대한 외교활동에 들어갔다. 이승만에게 필요한 서류와 자료를 만들어 보내고, 자신은 직접 광둥으로 가서 손문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두 가지를 요구했다. 하나는 임시정부를 승인해 달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태평양회의에 공동대응하자는 것이다. 손문은 여기에 찬성하고, 임시정부의 외교관이 광둥에 머물게 허락하면서 체류비도 보조해 주기 시작했다. 임시정부 승인 문제도 형식적으로는 약간의 한계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승인하는 결단을 내렸다. 이것은 모두 신규식의 외교가 거둔 성과였다.

하지만 태평양회의는 끝내 한국문제를 외면하였다. 그러자 잠시 주춤했던 임시정부 주변의 혼선과 갈등은 다시 재연하였고, 이는 단순한 재연이 아니라 앞서보다 더 강한 혼돈을 가져왔다. 이에 평소 신병에 시달리던 신규식은 급격하게 쇠약해져 순국하고 말았다.

그가 펼친 호법정부와의 외교활동은 마지막으로 던진 승부수였다. 그가 비록 이승만과 손잡고 외교로 최후 승부를 걸었지만, 그렇다고 이승만과 같은 범주에 속한 인물이라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승만은 이후 임시정부를 외면하였고, 1925년 끝내 임시의정원의 결의를 거쳐 임시대통령직에서 탄핵되었다. 하지만 신규식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도 임시정부를 살려야한다고 부르짖었다. 임시정부와 독립운동계의 혼돈을 잠재우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던진 것이다. 중국신문이 그의 죽음을 ‘자결순국’으로 평가한 이유도 거기에 있었다. 이러한 그의 자세는 이승만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 속했다.

[논문접수:2009.09.07, 심사시작:2009.09.08, 심사완료:2009.10.20]

주제어: 극동민족대회, 손문, 신해혁명, 대한민국임시정부

<ABSTRACT>

## The diplomatic works of Shin Kyu-sik as the representative of Korea Provisional Governmenty

Kim, Hee-gon

Shin Kyu-sik was the one who laid a cornerstone in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He was fluent in the Chinese language and maintained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 Chinese revolutionists ever since he experienced the torrent of the 1911 Revolution. If it were not for his support with his ability,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 Provisional Government in Shanghai would have been much more harder.

When the president Lee Seung-man arrived in Shanghai, Shin Kyu-sik put away his life in sickbed and rejoined the government. However, as president Lee failed to settle the pending problems of the government and finally left Shanghai never to come back, Shin Kyu-sik came up for the right man cover the absence of president. He was given two major tasks. One was to settle down the unstable political situation of KPG. The other was to make a request to Chinese Canton Government for cooperation in the Pacific Peace Conference. President Lee himself appointed Shin Kyu-sik as the right man to fulfill the task.

Shin Kyu-sik expected that it would be very helpful for the KPG to cope with the problem it was facing if he could secure the cooperation of the Chinese Canton Government. In the capacity of Prime Minister, concurrent with Minister of Justice and Minister of Foreign Affairs, Shin Kyu-sik made a visit to Sun Wen. Shin Kyu-sik requested Sun Wen for recognition of KPG and joint action in the Pacific Peace Conference. Sun Wen consented to Shin's request and made de facto recognition of KPG. Those were the great achievements Shin Kyu-sik's diplomacy has brought about.

However, the Pacific Peace Conference didn't pay attention to the works and petition of the KPG eventually. The diplomatic environment turned unfriendly to KPG, and Shin Kyu-sik quickly became weak and finally deceased of his chronic illness.

The diplomatic work of Shin Kyu-sik for the Pacific Peace Conference was the final task he had carried out. Though he worked with Lee Seung-man, it would be improper to classify them as figures of a kind. Lee Seung-man kept disregarding the Provisional Government and finally was impeached by the Provisional Parliament in 1925. On the Contrary, Shin Kyu-sik was desperate saving the KPG until he ended up his last breath. He had sacrificed his whole life for the peace and betterment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and the society of independence activists. The remark upon his death as "killing himself for his country" in a Chinese newspaper would be a relevant judgement.

key word :KPG, Sun Wen, 1911 Revolution, Korea Provisional Government